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1년 12월 5일  
제1872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례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루카 3,4-6)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 마시모 스탄치오네,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 대림 제2주일 (다해)

제 1 독 서 바룩 5,1-9 | 하느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화 답 송 시편 126(125)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 서 필리 1,4-6.8-11 |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루카 3,1-6 |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sup>1</sup>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sup>2</sup>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sup>3</sup>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sup>4</sup>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sup>5</sup>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sup>6</sup>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통회의 기도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를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 † 성탄 판공성사

일시 : 12월 7일(화) 오후 3시-4시, 오후 7시-9시



### † 복음 묵상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면서,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길을 닦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 초반부에는 종말론적 성격을 부각시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종말이 임박했으니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언급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십오년은 기원후 28년경이며, 본시오 빌라도는 26-36년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래아와 베레아 지방의 영주였고, 그의 이복 동생인 필리포스는 갈릴래아 호수 북동쪽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한나스와 그의 사위 카야파는 당시 대사제로 복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죄는 하느님을 등지는 행위이며, 죄 지은 인간이 하느님께 되돌아서는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등진 이웃을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내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마음의 움직임이 큰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나의 삶을 하느님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서철 바오로 신부)

## 대림 묵상

## “기도로 마음에 불을 지피십시오. 잠든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음은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우리의 영성생활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잠든 그리스도인들” 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잠든 그리스도인들, 영적 세속성에 마비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 이들은 마치 앵무새처럼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인, 선교에 대한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위한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들은 지평선을 바라볼 역량이 없으며, 늘 내부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꾸벅꾸벅 조는 것” 으로 이끕니다. 만사를 무기력하게 대하고, 무관심에 빠집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은 슬픈 인생입니다. 거기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루카 21,34 참조). 삶의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다음과 같이 자문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 무엇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가?
- 무엇이 내 정신을 물러지게 하는가?
- 무엇이 나를 게으름의 소파 위에 앉게 만드는가?

### 깨어 있기 위한 비결은 ‘기도’ 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 21,36).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고 느낄 때, 기도는 그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사물의 핵심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실존의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짧은 기도를 자주 반복하는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림시기에는 “오소서, 주 예수님” 이라고 말씀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저 한 마디에 불과하지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성탄으로 이어지는 이 준비의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구유를 생각하고, 성탄을 생각하며,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소서, 주님. 오십시오.” 하루 종일 이 기도를 반복하면 영혼이 깨어 있을 것입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모두 함께 이 기도를 세 번 합시다.

<전문 보기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1-11/papa-francesco-angelus-catechesi-vigilanza-preghiera.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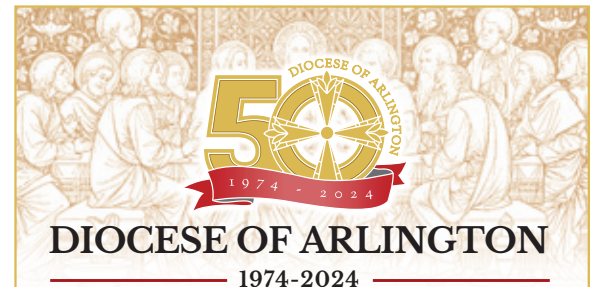
### 12월 8일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믿음은 초대 교회 때 생겨났다. 여러 차례의 성모님 발현으로 이러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1854년 비오 9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 를 ‘믿을 교리’ 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1838년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 조선교구의 수호자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로 정해줄 것을 청하였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이러한 요청을 허락하였다.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 12월 8일(수) 오전 11시, 오후 7:30
- 장소 :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본당)



##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 Year Two (2022년 11.20 시작)

“Rejoice” : 활력이 넘치는 교구의 현재 모습에 기뻐합니다.

#### Year Three (2023년 11.26 시작)

“Renew” : 앞으로의 우리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더욱 굳건히 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1 축하드립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 속에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2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대림특강**

- 일시 : 12월 5일(일) 오후 1시-3시 (친교실)
- 강사 :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평화방송 미주지사 사장 / 뉴욕)
- 주제 : “하느님의 사랑”

**3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2월 5일(일) 오전 11:40(B-1,2)

**4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 12월 8일(수) 오전 11시, 오후 7:30

**5 유아세례**

- 일시 : 12월 11일(토) 오후 2시 • 신청 : 사무실

**6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대림특강(2)**

- 일시 : 12월 12일(일) 오후 1시-3시 (친교실)
- 강사 :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님  
(보스턴칼리지 철학박사과정 /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 주제 :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

**7 단체장 회의**

- 일시 : 12월 12일(일) 오전 11:30(B-3,4)

**8 꼬미시옹 월례회의**

- 일시 : 12월 12일(일) 오후 3시(B-3,4)

**9 성탄 판공성사 안내**

- 일시 : 12월 7일(화) 오후 3시~4시, 오후 7시~9시
- 판공성사를 위해 손님 신부님들이 오십니다.
- 성사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 저녁 미사는 판공성사 관계로 7시에 봉헌합니다.

**10 2022년도 제대 봉헌 초 신청 (문의 : 성물부)**

**11 성탄 꽃 봉헌 받습니다 (문의 : 제대회)**

**12 2차 현금**

- 다음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자선(Catholic Christmas Collection)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봉투를 사용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집 원고 모집**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집 발간을 준비하며,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수기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 마감: 12월 말일 [sthasang@gmail.com](mailto:sthasang@gmail.com)

**14 가톨릭 평화신문 구독**

- 교리상식과 성경말씀 등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평화신문 구독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구독 신청 :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축하드립니다!**

이태섭(요한사도) 보좌신부님의 사제 서품 기념일(12월 7일)을 축하드립니다. 영육간 건강하시고, 주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탄 미사 안내**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일시 : 12월 24일(금) 오후 8시(구유예절로 시작)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일시 : 12월 25일(토) 오전 8시, 10시, 오후 5시
- 학생미사 : 오전 10시(친교실)
-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송년미사**

- 일시 : 12월 31일(금) 오후 7:3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 1월 1일(토) 오전 8시, 10시

**THE ST. LUCY Food Drive**

**Nov. 28 - Dec. 12**



알링턴 교구에서 운영하는 St. Lucy Project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food donation을 받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 친교실, 하상관에 박스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품목을 중심으로 도네이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FOOD ITEMS MOST NEEDED**

Mac and Cheese(microwavable),  
Chef Boyardee meals, Canned meats,  
Canned vegetables, Canned fruits,  
Shelf stable milk, Boxed mashed potatoes,  
Pasta and Pasta sauce.

**2022 CYO WorkCamp**

알링턴 교구에서 주최하는 WorkCamp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주일학교 사무실에 있습니다.

- 문의 : 구아름 (703) 599-8869  
권용우 (571) 244-0333
- 신청 마감 : 12월 5일



**본당 관리직 직원 채용합니다.**

- 문의 : 사무실 (703) 968-3010

**감사드립니다!**

현 회장단 임기를 본당 회계결산 일정과 관련하여 마감일인 2022년 6월 말일까지로 연기합니다. 수고해 주신 회장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1월 28일(대림 제1주일)

주일헌금	\$ 6,353.58
교무금	\$ 8,400.00
교무금(신용카드)	\$ 5,95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260.00
온라인 봉헌	\$ 2,390.00
2차 현금	\$ 3,626.00
<b>합계</b>	<b>\$ 26,979.58</b>

♥ 주일헌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매일 오전 8시, 오후 12시, 6시 뉴스 시작 1분 전에 김태진 신부님의 1분 묵상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12월 8일(수) 오전 6:15-6:45
- 12월 1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주일미사 강론
- CBCK 미디어교리 - “성경”
- 본당 공지사항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12월 9일(목) 오후 5:00-6:00
- 12월 10일(금) 저녁 8:00-9:00
- 12월 12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미사 강론
2. 특강 : 김대우 모세 신부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12)  
- 아무도 몰래 은은하게 다가온 벗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d>화, 금</td> <td>수</td>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